

행복지수 개발의 정책적 함의: '행복빈곤'의 시론적 검토



Policy Implication of Happiness Indices:
Focused on Conceptualization of
'Poverty of Happiness'

여유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미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다차원적 삶의 영역에서의 만족도를 포괄하는 행복지수를 산출한 결과는 6.33점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인은 평균적으로 관계의 질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거버넌스의 질과 경제적 안정성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20대는 일과 삶의 가치에 대한 만족도가, 60대는 경제적 안정성이 특히 낮은 수준이었으며, 40대는 건강에 대한 만족도가 30대에 비해 낮았다. 또한, 독거 가구의 행복도가 전 영역에 걸쳐 2인 이상 가구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다. 중위 행복지수 점수의 50%, 60%, 75% 미만인 '행복빈곤' 인구의 비율은 각각 3.7%, 7.5%, 16.5%였으며, 특히 저소득층의 행복빈곤 위험도가 전체에 비해 2.9~4.9배 더 높은 수준이었다. 이와 같이 정책 표적집단 확인과 효과성 분석에서 행복지수와 행복빈곤 개념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 들어가며

'행복'이라는 용어가 사회과학의 영역, 특히 정책의 영역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경제적 '안녕'(well-being)이나 '복지'(welfare)는 경제·사회정책의 궁극적 목표로 널리 통용되어 온 반면, '행복'

(happiness)은 주로 철학이나 심리학 영역에서 다루어져 왔다. 행복이 사회과학, 특히 경제·사회정책 영역에서 다루어지기 시작한 데는 몇 가지 내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무엇보다도 물질적 안녕과 효용(utility)을 최상의 가치로 여기는 자본주의의 경제 발전 논리, 특히 신자유주의적 발전 논리에 대한 회의와 반성에

서 기인한다. 성장 패러다임에 대한 회의는 대표적으로 2008년 ‘국민총행복’ 지수를 측정하려는 새로운 시도로 나타났다.¹⁾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낮지만 행복도는 세계 최고 수준인 부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도 이즈음이었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기존에 복지국가의 효과성을 보여 주는 지표로 널리 사용되던 재분배 지표들, 대표적으로 지니계수, 빈곤율 등이 복지국가 제도들의 기능적 결과(outputs)를 보여 줄 뿐 그것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outcome)를 보여 주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낸 상황에서 새로운 지표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예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더 나은 삶 지표’(BLI: Better Life Index)이다.

이와 같이 행복 지표 또는 지수는 새로운 개념은 아니지만 최근으로 올수록 사회정책과의 밀착도가 높아지고 있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행복의 개념이 사회정책과 연계될수록 단일 차원의 지표에서 다차원의 지수로 그 연구 영역이 확장되어 가는 것도 또 하나의 경향이라 할 수 있다. 기존에는 “당신은 어제 얼마나 행복했습니까”(happiness), “당신은 전반적으로 당신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life satisfaction), “당신은 당신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eudaimonia)와 같은 단일한 문항을 통해 얻어지는 점수를 행복도 점수로 간주했다. 최근에는 이와 더불어 다양한 차원의 만족도 또

는 객관적 지표들의 가중 합산 점수를 통해 행복 지수를 구성하는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시도된 행복지수의 예로는 김승권 외(2008)의 행복 결정 요인, 황명진, 심수진(2008)의 행복지수, 국가미래연구원(2017)의 국민행복지수, 그리고 통계청의 삶의 질 지표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김승권 외(2008)의 지수를 제외하고는 거시 지표의 가중 합산 지수로, 개인의 주관적 행복도에 대한 다차원 척도가 아니라는 점에서 단일 차원의 행복도 점수와 비교하는 데 한계가 있다. 여기에서는 2017년에 시도된 김미곤 외(2017)의 행복지수 개발 절차를 개괄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서 ‘행복빈곤’ 개념을 제안하고자 한다.

2. 행복지수의 개발과 적용

가. 행복지수의 개발 절차와 결과

김미곤 외(2017)의 연구에서는 <표 1>과 같은 절차를 거쳐 다차원적 삶의 영역에서의 만족도를 포괄하는 행복지수를 도출하였다.

첫 번째 단계로 선행 연구 검토와 선행적·규범적 접근을 통해 행복의 영역과 세부 항목(안)을 구체화하였다. 연구진 초안은 10개 행복 영역-삶의 가치와 목표, 관계, 환경, 생활의 질, 경제적 안정, 일, 건강, 주거환경, 교육, 거버넌스의 질-

1) 이를 위해 당시 프랑스 대통령이던 니콜라 사르코지는 조지프 스티글리츠, 아마르티아 센, 장폴 피투시 등 세계적 석학 25명으로 구성된 “경제성과 및 사회진보 측정 위원회”(CMEPSP: The Commission on the measurement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를 구성하였다(Stiglitz, Sen, Fitoussi, 2009, p. 7).

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영역에서 3~4개의 주요 지표 항목들을 제안하였다.

이어서 두 번째 단계로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통해 사회과학 전문가 55명에게 각 영역과 지표의 상대적 중요성을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를 분석하여 행복의 영역과 세부 항목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예컨대, 경제적 안정과 생활의 질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성격이 강하다는 의

견이 많아 두 영역을 통합하였다. 생태적 자연환경과 주거환경도 좀 더 포괄적인 영역인 환경의 질로 통합 가능하다는 의견을 수용하였다. 특히, 한국 사회의 높은 교육열은 오히려 행복을 저해하는 역기능을 할 수 있고 그 자체로는 행복 증진에 기여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최종적으로 행복의 영역에서 제외되었다. 그 결과 최종적인 행복 영역은 7개로 축소되었으며, 영역별 세부

표 1. 한국인의 행복지수 체계 개발 절차 개요

절차		방법	행복의 영역	
1 단계	행복 영역 및 지표 도출	기존 연구 검토 선행적·규범적 접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삶의 가치와 목표 · 관계 · 환경 · 일 · 생활의 질 · 경제적 안정 · 건강 · 주거환경 · 교육 · 거버넌스의 질 	
2 단계	행복 영역 및 지표 결정	전문가 조사(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삶의 가치와 목표 · 관계의 질 · 주거와 환경의 질 · 일 · 생활의 질과 경제적 안정 · 건강 · 거버넌스의 질 	가중치
3 단계	행복 영역 및 지표의 가중치 결정	전문가 조사(2)		14.9% 16.8% 9.1% 18.3% 13.3% 17.4% 10.1%
4 단계	한국인의 행복 지수 도출	일반 국민 전화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 가족, 친구, 동료와의 관계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가 · 거주하는 주택과 주변 환경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가 · 여가와 문화생활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가 · 소득, 소비, 재산 수준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가 ·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가 · 자신과 주변의 중요한 사람들의 건강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가 · 신뢰, 격차, 민주주의, 자유 등 우리 사회의 질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가 	만족도
				6.52점 7.32점 6.71점 5.77점 5.52점 6.22점 6.37점 5.15점
행복지수				6.3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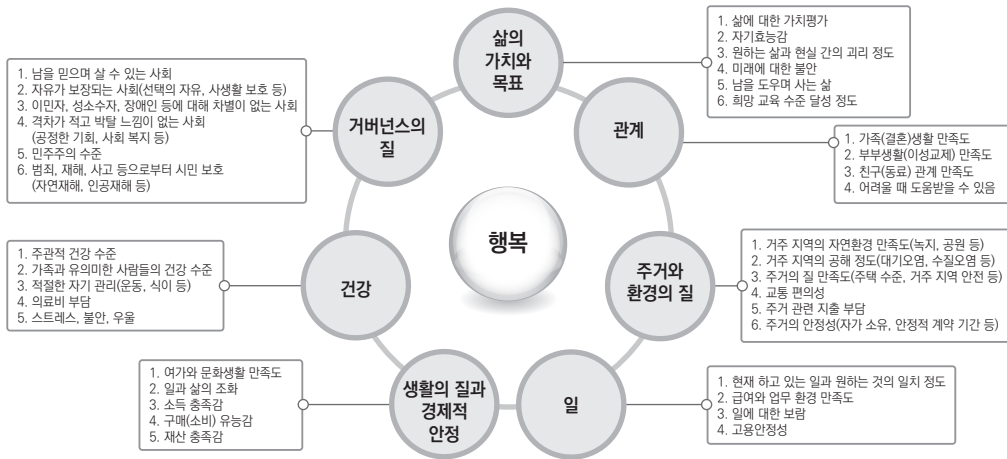
지표는 [그림 1]과 같이 결정되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또 한 번의 전문가 조사(응답자 49명)를 통해 조정된 행복의 영역과 세부 영역별 지표들을 제시하여 상대적 중요도를 부여하도록 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행복의 각 영역과 세부 지표의 가중치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일에 대한 만족에 가장 높은 가중치(18.3%)가 부여되었으며 다음으로 건강(17.4%), 관계의 질(16.8%), 삶의 가치와 목표(14.9%), 생활의 질과 경제적 안정(13.3%), 거버넌스의 질(10.1%), 주거와 환경의 질(9.1%) 순으로 가중치가 부여되었다.²⁾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계에서는 19~69세 일

반인 1000명을 대상으로 앞서 결정된 행복의 영역별 만족도에 대한 전화조사를 실시하여 행복 지수 점수를 산출하였다. 조사 결과, 관계의 질에 대한 평균적인 만족도가 10점 만점에 7.3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거주하는 주택과 주변 환경에 대한 만족도(6.71점), 삶의 가치(6.52점), 본인과 주변인의 건강 만족도(6.37점), 일에 대한 만족도(6.22점)가 6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 사회의 질은 5.15점으로 가장 낮게 평가되었으며, 경제적 수준 만족도(5.52점), 여가와 문화생활 만족도(5.77점)도 6점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그림 1. 행복 영역별 지표 구성도(최종)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한국인의 행복지수 개발을 위한 2차 전문가조사 조사표.

2) 단순화를 위하여 여기에서는 행복지수를 구성하는 영역만을 제시하였다. 세부 지표는 김미곤 외(2017) 보고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행복지수 = (삶의 가치×0.149) + (관계 만족도×0.168) + (주택과 주변 환경의 질 만족도×0.091) + ((여가 및 문화생활 만족도 + 경제적 수준 만족도)/2×0.133) + (현재하고 있는 일에 대한 만족도×0.183) + (자신과 주변 사람의 건강 만족도×0.174) + (거버넌스의 질 만족도×0.101)
 (※ 각 문항은 0~10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음)

최종적으로 7개 행복 하위 영역별 만족도 점수에 앞서 도출된 가중치를 적용하여 최종적인 행복지수를 산출하였다. 이렇게 계측된 한국인의 행복지수는 6.33점으로 나타났다.

나. 행복지수의 적용

이러한 절차를 거쳐 도출된 행복지수와 기존 행복 관련 지표들 간의 상관관계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행복지수와 가장 높은 상관도를 보이는 지표는 삶의 만족도로 0.811에 이르며, 주관적 행복도는 이보다는 약간 낮지만 0.745의 상관도를 보였다. ‘행복’ 본연의 개념과는 다소 동떨어진 개념이지만 최근 행복의 중

요한 예측 인자로 주목받고 있는 미래 안정성과의 상관도 역시 0.677에 이르러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고에서 산출된 행복지수와 행복 관련 지표의 상관관계가 높다는 것은 행복지수의 타당도(“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올바르게 측정하고 있는가”)가 높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행복지수의 평균 점수(6.329점)는 주관적 행복도(6.505점)보다 약간 낮고, 삶의 만족도(6.352점)와 거의 유사하며, 미래 안정성(5.740점)보다는 높은 수준이다.³⁾

영역별로 볼 때 한국인은 가족, 친구, 동료 등과의 관계의 질에 대해 7.32점의 가장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으며, 주택과 주변 환경에 대해서도

표 2. 행복지수와 관련 지표 간의 상관관계 및 평균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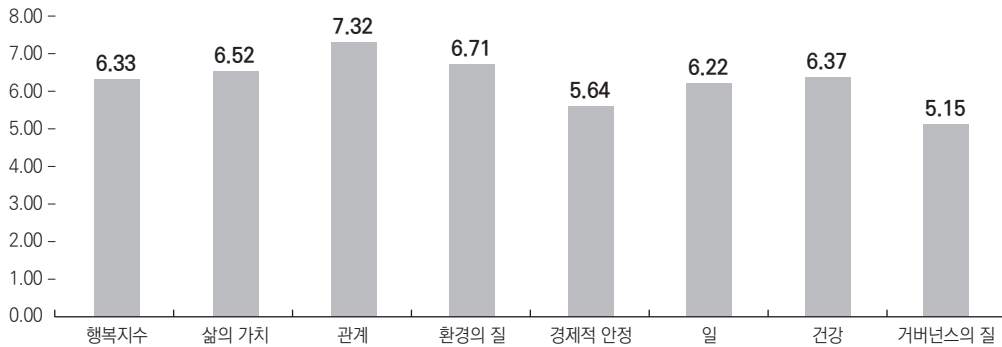
구분	행복지수	주관적 행복도	삶의 만족도	미래 안정성
행복지수	1.000			
주관적 행복도	0.745	1.000		
삶의 만족도	0.811	0.751	1.000	
미래 안정성	0.677	0.618	0.721	1.000
평균 점수	6.329	6.505	6.352	5.740

자료: 김미곤, 여유진, 정해식, 박이택, 김성아. (2017). 행복지수 개발에 관한 연구. p. 109. <표 4-4>.

3) 여기에서 산출된 행복 관련 지표의 평균 점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14년 이래 매년 조사하고 있는 ‘사회통합 실태조사’의 점수와 매우 유사하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산출된 주관적 행복도와 삶의 만족도 점수는 각각 6.7점과 6.3점이다(정해식 외, 2017, pp. 408-409).

그림 2. 영역별 만족도 점수

(단위: 점)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한국인의 행복지수 개발을 위한 대국민조사(전화조사)를 이용해 분석함.

6.71점으로 비교적 높은 만족감을 표시했다. 반대로 신뢰, 격차, 민주주의, 자유 등 우리 사회의 질에 대해서는 5.15점으로 만족도 점수가 가장 낮았고, 여가와 문화생활 등의 삶의 질과 경제적 안정성 역시 5.64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 점수를 기록하였다.

〈표 3〉은 개인의 특성과 가구 규모별 행복지수 및 하위 영역을 구성하는 지표들의 점수를 보여 주고 있다. 여자는 남자에 비해 대부분의 영역에서 약간 더 높은 수준의 만족도와 행복지수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건강 만족도는 여자(6.29점)가 남자(6.44점)에 비해 더 낮았다. 하지만 남녀 간의 이러한 만족도와 행복지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연령별로 볼 때, 대체로 3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수준의 행복도와 만족도를 보여 주

고 있다. 주거와 환경의 질과 경제적 안정성에서 각각 40대와 20대에 비해 약간 낮은 수준의 만족도를 기록할 뿐-이조차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삶의 가치, 관계의 질, 일, 건강, 거버넌스 질 등 나머지 영역에서는 30대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반대로 60대의 경우 거주 및 환경의 질과 거버넌스 질을 제외한 전 영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였으며, 그 결과 행복지수도 6.05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20대의 경우 삶의 가치(6.35점)와 일(5.90점)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가치 혼란과 일자리 불안정성의 문제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40대는 주거와 환경의 안정성(6.81점)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생애주기상 건강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는 시기(6.21점)임을 알 수 있다.

표 3. 인구 및 가구 특성별 행복지수와 하위 영역 점수

(단위: 점)

구분	범주	행복지수	삶의 가치	관계	환경의 질	경제적 안정	일	건강	거버넌스 질
성별	남자	6.27	6.37	7.23	6.70	5.58	6.15	6.44	5.06
	여자	6.39	6.68	7.40	6.71	5.71	6.30	6.29	5.24
연령 범주	20대	6.36	6.35	7.49	6.61	5.87	5.90	6.70	5.24
	30대	6.56	6.87	7.61	6.78	5.70	6.48	6.71	5.26
	40대	6.34	6.67	7.20	6.81	5.61	6.40	6.21	5.14
	50대	6.25	6.46	7.19	6.61	5.54	6.23	6.26	5.04
	60대	6.05	6.06	7.06	6.67	5.52	5.92	5.89	5.07
최종 학력	중졸 이하	5.63	5.88	6.77	6.12	4.71	5.30	5.51	5.00
	고졸	6.11	6.24	7.16	6.56	5.41	5.96	6.17	4.90
	대졸 이상	6.57	6.79	7.49	6.89	5.94	6.52	6.63	5.31
경활 상태	상용직	6.51	6.64	7.44	6.79	5.80	6.64	6.56	5.19
	임시·일용직	6.05	6.21	7.23	6.02	5.13	5.81	6.30	5.13
	자영자	6.40	6.70	7.26	6.87	5.55	6.37	6.51	5.12
	실업자	5.39	5.37	6.90	5.92	5.01	4.00	5.58	5.13
	비경활	6.23	6.49	7.27	6.82	5.86	5.91	6.01	5.12
가구 규모	1인	5.84	6.13	6.94	5.98	5.19	5.56	5.99	4.59
	2인	6.27	6.51	7.13	6.65	5.79	6.17	6.17	5.15
	3인	6.36	6.52	7.34	6.68	5.53	6.36	6.48	5.19
	4인	6.45	6.62	7.44	6.96	5.72	6.34	6.49	5.25
	5인 이상	6.48	6.65	7.61	6.83	5.75	6.32	6.55	5.28
	전체	6.33	6.52	7.32	6.71	5.64	6.22	6.37	5.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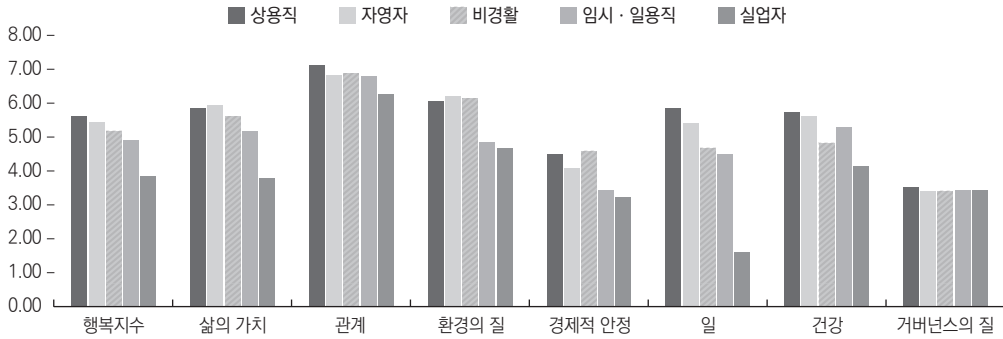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한국인의 행복지수 개발을 위한 대국민조사(전화조사)를 이용해 분석함.

경제활동 상태에서 실업자는 일자리를 가진 사람은 물론이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행복도(5.39점)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일(4.0점)과 경제적 안정성(5.01점)은 물론이고 삶의 가치(5.37점), 건강(5.58점), 주거와 환경의 질(5.92점), 그리고 관계의 질(6.90점)에서도 다른 집단에 비해 상당히 낮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어 생활 전반에서 총체적 난관과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업자의 경우, 단순히 경제적 고통뿐 아니라 생활 전반의 영역과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심각한 위축

을 경험하며 재취업 후에도 안녕의 수준이 여전히 낮다는 점은 실업이 '흉터'(Scarring) 효과를 가진다는 주장(Thompson, 2013, p. 428)과도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임시·일용직의 만족도 점수가 대체로 비경제활동인구에 비해서도 더 낮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들은 일, 경제적 안정성, 환경의 질, 삶의 가치 등에서 전반적으로 비경제활동인구에 비해 만족도가 낮았다.

마지막으로, 가구 규모에 따른 행복지수와 하위 영역의 만족도 점수를 분석한 결과, 두드러진

그림 3. 경제활동 상태별 만족도 점수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한국인의 행복지수 개발을 위한 대국민조사(전화조사)를 이용해 분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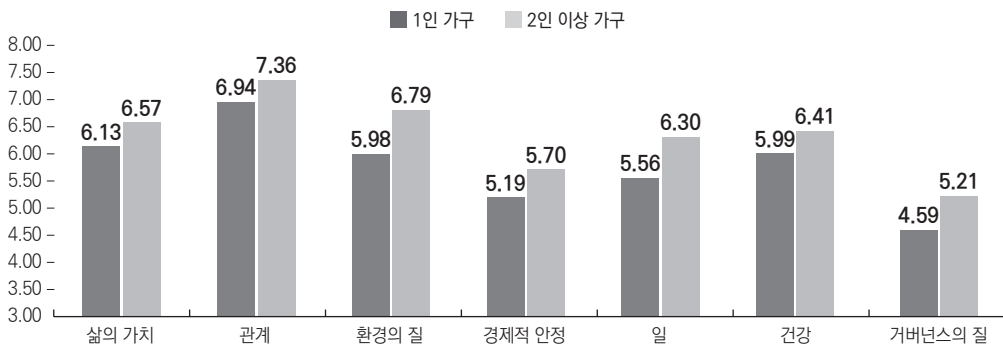
점은 1인 가구의 행복도와 만족도가 2인 이상 가구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점이다. 이에 비해 2인 이상에서는 가구 규모 간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하지만 그 차이가 미미한 수준에 불과했다. 1인 가구의 경우 특히 일에서의 만족도(5.56점),

경제적 안정성과 삶의 질(5.19점), 그리고 거버넌스의 질(4.59점)에서 2인 가구와 0.6점 내외의 큰 편차를 보였다.

〈표 4〉에서와 같이, 계층별 행복지수와 영역별 만족도는 직관적으로 볼 때도 월소득과 주관

그림 4.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만족도 점수

(단위: 점)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한국인의 행복지수 개발을 위한 대국민조사(전화조사)를 이용해 분석함.

적 계층에 따라 상당히 큰 상관관계가 있어 보인다. 100만 원 미만의 소득계층과 스스로 저소득층이라 인식하는 사람의 행복지수는 각각 4.98점과 4.84점으로, 1000만 원 이상의 소득계층과 스스로 중상층 이상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행복지수에 비해 각각 2.14점, 2.44점 더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차이는 앞서 살펴본 인구학적 특성이나 가구 규모별 행복도의 편차에 비해 더 큰 차이로, 소득의 차이가 행복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최하 소득계층에 해당하는 집단과 그보다 한 단계 높은 집단 간의 행복도와 만족도 차이가 그 이상 집단 간의 차이

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나는 점은 주목해 보아야 할 대목이다. 예를 들면, 저소득층과 중하층 간의 행복지수 격차는 1.08점으로, 중하층과 중간층 간의 격차(0.75점)와 중간층과 중상층 간의 격차(0.61점)에 비해 더 크다. 이는 대체로 예외 없이 적용되는 현상으로, 한편으로는 절대적 박탈과 상대적 박탈감을 동시에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최하층의 열악한 현실을,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털린 역설'⁴⁾을 보여 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4. 경제적 수준별 행복지수와 하위 영역 점수

(단위: 점)

구분	범주	행복지수	삶의 가치	관계	환경의 질	경제적 안정	일	건강	거버넌스 질
월소득	100만 원 미만	4.98	5.67	6.33	5.35	4.18	3.97	5.01	4.24
	100만~199만 원	5.62	5.67	6.87	5.94	4.84	5.17	5.81	4.75
	200만~299만 원	6.31	6.62	7.38	6.61	5.31	6.32	6.22	5.32
	300만~399만 원	6.30	6.46	7.21	6.67	5.45	6.20	6.64	5.04
	400만~499만 원	6.58	6.74	7.58	6.88	5.95	6.52	6.58	5.45
	500만~699만 원	6.56	6.82	7.48	6.97	6.02	6.58	6.41	5.25
	700만~999만 원	6.84	6.75	7.64	7.43	6.65	6.85	6.93	5.31
	1000만 원 이상	7.12	7.03	7.72	7.65	6.89	7.53	7.14	5.41
주관적 계층	저소득층	4.84	5.06	6.20	5.28	3.55	4.25	5.29	3.90
	중하층	5.92	6.18	7.08	6.17	4.91	5.81	6.02	4.79
	중간층	6.67	6.86	7.64	6.99	6.14	6.70	6.54	5.44
	중상층 이상	7.28	7.38	7.74	7.95	7.18	7.24	7.35	5.96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한국인의 행복지수 개발을 위한 대국민조사(전화조사)를 이용해 분석함.

4) 이스털린 역설(The Easterlin Paradox)은 1974년 리처드 이스털린이 제기한 가설로-국가 간 횡단적 비교나 한 국가 내에서의 시계열 비교 결과- 소득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추가적으로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행복의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주장이다(Easterline, 1974; 김미곤 외, 2014, p. 185 재인용).

3. 행복지수를 이용한 행복빈곤의 시론적 검토

행복지수의 정책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또 하나의 방안으로 행복지수와 빈곤 개념을 결합한 ‘행복빈곤’의 개념을 시험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행복빈곤의 조작적 정의는 소득에서 주로 활용되는 상대적 빈곤 개념과 유사하다. 즉, 중위 행복도(6.46점)의 50%, 60%, 75% 미만인 행복도를 가진 사람을 의미하며, 전체 인구 중 이러한 인구의 비율을 행복빈곤율이라 칭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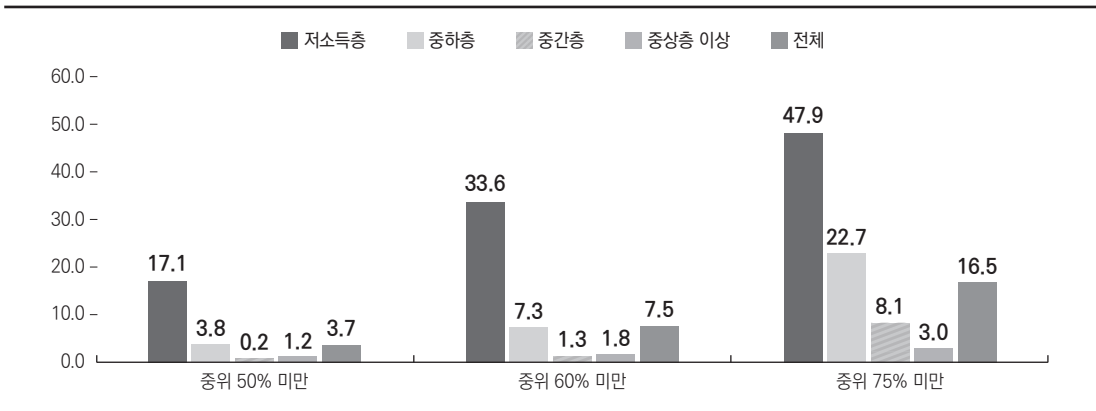
[그림 5]는 주관적 계층별 행복빈곤율을 보여 준다. 행복지수 점수가 중위값의 50%(3.23점)에 못 미치는 행복빈곤층의 비율은 3.7%, 중위소득 60% 미만은 7.5%, 중위소득 75% 미만은 16.5%로 나타났다. 주관적 계층별로 볼 때 저소득층의 행복빈곤율은 중위소득 50%, 60%, 75%에서 각각 17.1%, 33.6%, 47.9%에 이르러, 중간층의 행

복빈곤율 1.2%, 1.8%, 3.0%와 대조를 이룬다. 즉, 경제적 빈곤이 행복의 빈곤과 직결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행복빈곤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험 인자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절대적 박탈계층이라 할 수 있는 저소득층은 행복빈곤에 처할 위험이 다른 계층에 비해 현격히 높다는 것이다.

또한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간층 이상의 행복지수가 대체로 5점 이상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데 비해, 저소득층의 경우 행복지수 분포가 상당히 산포되어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일정 소득 이상이 확보될 경우 여타의 조건과는 무관하게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정적인 행복도를 영위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소득이 낮거나 불안정할 경우 다른 조건들-예컨대 낙관적 성격, 자녀와의 관계, 건강, 종교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더 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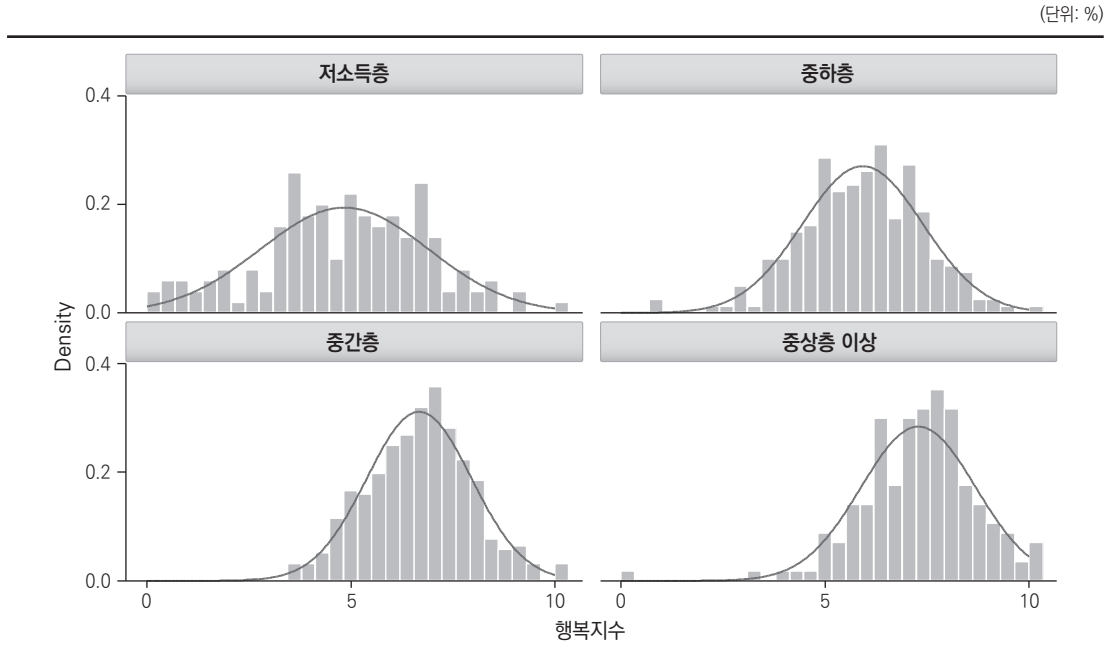
그림 5. 주관적 계층별 행복빈곤율(중위값=6.46)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한국인의 행복지수 개발을 위한 대국민조사(전화조사)를 이용해 분석함.

그림 6. 주관적 계층에 따른 행복지수 분포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한국인의 행복지수 개발을 위한 대국민조사(전화조사)를 이용해 분석함.

표 5. 인구 및 가구 특성별 행복빈곤 위험률

(단위: 배)

범주	구분	중위 50% 미만	중위 60% 미만	중위 75% 미만
성별	남자	1.117	1.076	1.002
	여자	0.879	0.921	0.998
연령 범주	20대	0.777	0.920	0.906
	30대	0.640	0.632	0.804
	40대	1.094	1.080	0.834
	50대	0.948	1.053	1.116
	60대	1.737	1.429	1.515
최종 학력	중졸 이하	2.550	2.264	2.115
	고졸	1.053	1.385	1.220
	대졸 이상	0.692	0.569	0.683
경황 상태	상용직	0.396	0.619	0.667
	임시·일용직	0.901	1.630	1.616
	자영자	1.028	1.065	0.922
	실업자	3.638	2.564	2.098
	비경황	1.598	1.004	1.238
가구 규모별	1인 가구	2.385	2.092	1.545
	2인 이상 가구	0.843	0.876	0.938

(표 5. 계속)

범주	구분	중위 50% 미만	중위 60% 미만	중위 75% 미만
월소득	100만 원 미만	4.880	3.889	3.030
	100만~199만 원	1.911	2.020	1.775
	200만~299만 원	0.594	0.952	1.099
	300만~399만 원	1.126	0.873	0.722
	400만~499만 원	0.370	0.457	0.664
	500만~699만 원	0.145	0.357	0.713
	700만~999만 원	0.751	0.556	0.505
	1000만 원 이상	0.365	0.360	0.246
주관적 계층	저소득층	4.628	4.475	2.906
	중하층	1.040	0.969	1.373
	중간층	0.059	0.176	0.493
	중상층 이상	0.328	0.242	0.184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한국인의 행복지수 개발을 위한 대국민조사(전화조사)를 이용해 분석함.

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인구와 가구 특성별로 행복빈곤을 경험할 위험(=해당 집단의 빈곤율/전체 빈곤율)을 추정된 결과는 <표 5>와 같다. 중위 50% 미만 행복빈곤율을 기준으로 할 때, 60대가 행복빈곤의 위험에 처할 확률은 전체 평균보다 1.737배 더 높다. 중졸 이하의 저학력자는 2.55배, 실업자는 3.638배, 독거 가구는 2.385배, 월소득 100만 원 미만인 사람은 4.88배, 스스로를 저소득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4.628배 더 빈곤 위험에 처할 확률이 높다. 즉, 실업자, 노인, 저학력자, 독거 가구, 저소득자는 평균적으로 행복감 결핍과 낮은 삶의 만족도를 경험할 확률이 일반적으로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4. 나가며: 행복지수와 행복빈곤의 정책적 함의

지금까지 한국인의 행복지수를 개발하기 위한 절차를 요약하고, 이렇게 도출된 가중치와 1000

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한국인의 행복지수를 산출하였다. 또, 인구 특성과 소득계층별로 하위 항목별 만족도와 행복지수 점수의 분포를 개괄하였다. 마지막으로 ‘행복빈곤’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한국인의 행복빈곤율을 계측해 보고자 하였다.

행복지수 점수는 삶의 만족도 점수와 비슷한 수준이며 행복도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으로 타당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인은 평균적으로 관계의 질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거버넌스의 질과 경제적 안정성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한국의 현실을 여과 없이 반영하는 결과로서, 행복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어디에 집중되어야 하는지를 일깨우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0대는 일과 삶의 가치에 대한 만족도가, 60대는 경제적 안정성이 특히 낮은 수준이고 40대는 건강에 대한 만족도가 이전에 비해 급격히 떨어지는 시기라는 점은 생애주기별 복지제도 설계에도 상당

한 함의를 준다. 1인 가구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현실에서 독거 가구의 행복도가 전 영역에 걸쳐 2인 이상 가구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는 점도 주목해 보아야 할 대목이다.

본고에서 시도된 행복빈곤 개념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주의적 접근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경제에서 연대(solidarity)와 평등에 기반한 공화주의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즉, 전체 시민의 행복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행복도가 매우 낮은 사람들, 따라서 불행하다고 할 만한 행복빈곤층의 행복도를 높이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스털린 역설을 뒤집어 보면,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의 행복도를 추가적으로 높이는 것은 어렵지만, 소득 향상과 삶의 질 개선 같은 정책적 개입을 통해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의 행복도를 높이는 것은 상대적으로 용이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주요 삶의 영역에서의 행복도를 결합한 행복지수의 개발과, 특정 수준 이하의 행복도를 가진 집단을 확인하기 위한 행복빈곤의 개념은 정책적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문헌

국가미래연구원. (분기별). **국민행복지수**. 서울: 국가미래연구원.
 김미곤, 여유진, 김태완, 정해식, 우선희, 김성아.

(2014).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연구: 사회통합과 국민행복을 중심으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 여유진, 정해식, 박이택, 김성아. (2017). **행복지수 개발에 관한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승권, 장영식, 조흥식, 차명숙. (2008). **한국인의 행복결정요인과 행복지수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해식, 김미곤, 여유진, 전진아, 김문길, 우선희, 최준영. (2017).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방안 연구: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황명진, 심수진. (2008). 한국의 행복지수 개발. **조사연구**, 9(3), 93-117.

통계청. **국민 삶의 질 지표**. <https://qol.kostat.go.kr/blifeguide-proc.do>

Stiglitz, J. E., Sen, A., & Fitoussi, J. (2009). Report by the Commission on the Measurement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 www.stiglitz-sen-fitoussi.fr

Thompson, S. (2013). Introduction to Happiness and Society. In David, Suan A., Ilona Boniwell, & Amanda Conley Ayers. (eds). *The Oxford Handbook of Happiness*. Oxford University Press.